

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
보도자료

IGE 세계경제연구원
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

보도일시 2012. 09. 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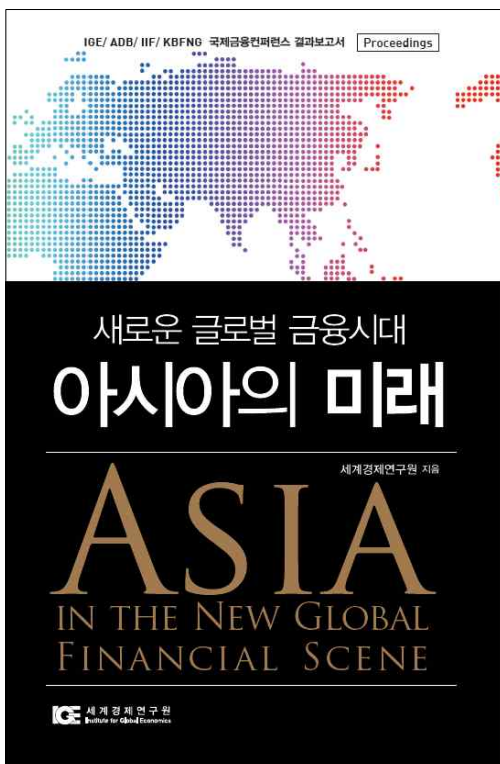
배포일시 2012. 09. 12

담당자 세계경제연구원

연락처 02-551-3334

igenet@igenet.com

제 목 : “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 아시아의 미래” 출간



□ 세계경제연구원(이사장 : 사공 일)은 “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, 아시아의 미래(Asia in the New Global Financial Scene)” 제하의 간행물을 출간하였음.

□ 지난 5월 17~18일 개최된 국제 금융컨퍼런스의 결과 보고서인 동 간행물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(1) 세계경제와 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
- (2) 유럽 국가채무 및 금융위기가 아시아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
- (3) 대형금융기관(G-SIFIs)의 규제와 시사점
- (4) ASEAN+3 금융협력의 미래와 전망

□ 특별세션: “지금 이 글로벌 불균형(global imbalance)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”

- 스티븐 로치(Stephen Roach) 미국 예일대 교수(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)는 글로벌 불균형(global imbalance)을 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, 선진국의 저축 증대와 신흥·개도국의 소비 확대를 통한 글로벌 재균형(global rebalancing)의 즉각적인 시발을 촉구함.

□ 세션 1: 세계경제와 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

- 아시아 금융시장의 미 달러화 및 선진국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

점차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혁 시행과 역내 금융통합 심화를 제안하고, 금융의 발전 속도나 규모보다는 질(quality)적 향상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와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.

□ 세션 2: 유럽 국가채무 및 금융위기가 아시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

- 유럽위기의 여파는 아시아 시장에서 외환유동성 붕괴, 수출 감소,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은행들의 외환유동성에 대한 완충제(buffer) 확대를 제안함. 한편 유럽의 현 방화벽이 위기 방지에는 역부족이므로 재정연방주의(fiscal federalism)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함.

□ 세션 3: 글로벌 체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(G-SIFIs) 규제와 시사점

- G-SIFIs 선정(29개 중 아시아 은행은 4개) 및 규제 영향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 토론자들은 아시아 외환시장이 은행 디레버리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전망함. 아울러 한국 금융기관들의 실적 향상과 외국 단기자금 비율 감소를 통한 외국 통화 유동성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함.

□ 세션 4: ASEAN+3 금융협력(CMI 다자화, CMIM)의 미래와 전망

- CMI 다자화와 ASEAN+3 거시경제감시기구(AMRO)의 설립이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함. 한편 양 메커니즘의 당초 설립목적과 임무(거시경제감시 및 위기에방과 관리) 이행을 위해서는 자금 규모 확대 및 기관 역량 강화를 강조함. 아울러 IMF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 도출도 제안함.

□ 종합토론

- 역내 금융안전망과 IMF 간의 협력을 배가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IMF 지배구조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IMF 내 아시아의 영향력 제고를 강조함. 또한 참석자들은 동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함.